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 개최

식품연구원, 푸드테크 발전에 국가표준이 가지는 역할 · 표준화 전략 논의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이 주관한 '2024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이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등록 인원만 730명에 달하며, 현장에는 500여 명 이상의 산업계와 학계 등 푸드테크 관계자가 참석해 푸드테크 발전에 있어 국가표준의 역할과 지향점을 논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산업표준의 60년, 그리고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식품연의 김명호 전문위원이 첫 번째 연사로 나서 산업표준의 역할과 60년간의 성과를 회고하고 푸드테크 발전에 있어 국가표준이 가지는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최형윤 선임연구원이 현재 최종 고시를 앞둔 푸드테크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소개하고 향후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고수분압출성형기술 및 3D 프린팅 기술의 성능평가 표준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진 제2세션은 '식물성 대체식품, 표준 현황 및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Bright Green Partners(식품분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Floor Buitelaar 경영파트너가 신식품(Novel food)을 중심으로 식물성 대체식품의 국제표준 현황과 사례를 소개했다.

'푸드테크,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진규 교수가 상향식 역공학 접근법에 기초한 식품 3D 프린팅 기술과 대체식품 제조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김현우 교수가 식품 3D 프린팅 기술에서 필요한 표준화 대상과 그 수행전략에 대해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UFA 등의 Vinodthan Nayagar 전략기획 최고책임자가 세계 최초의 업사이클 식품 인증제도인 Upcycled Certified과 관련 인증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마무리 되었다.

식품연 백현동 원장은 "푸드테크 시대에서 국가표준은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올해 식물성 대체식품, 업사이클 식품, 식품 3D 프린팅 기술 등 3개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표준화는 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푸드테크 산업법 제정 등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가 공동의 이익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힘써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정책 '잘했다'

'제6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우수상 수상

전주시가 공동의 이익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힘써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기반 정비 부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정책평가는 △정책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정책성과 △거버넌스 수준 4개 분야 17개 지표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기반 정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9개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수상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12곳이 활동 중으로, 이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전체 사회적기업의 37%에 달한다.

시는 현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사회연대 상생마당'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상생마당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성장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김옥기기자

전북중기청, 26일 디지털 해외마케팅 온라인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디지털 해외마케팅 전략 설명회'를 26일 오후 2시 온라인 줌으로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최근 트랜드인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 해외시장 진출 노하우 등 수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하고자 마련하였다.

최근 K-콘텐츠(뷰티·푸드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수출을 위해서는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 능력이 수출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가 SNS 활용 해외진출 성공사례와 해외고객 만족도 향상 기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특성별 전략, 브랜드 현지화 성공 노하우 등에 대해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자치도 · 전북농협, 양파 선제적 수급 안정 총력

2024년 양파 품목 수급조절 체계 구축 위한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지난 21~22일 농협 변산수련원에서 행정, 주산지농협, 생산자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 품목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2024 양파 품목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25년 양파 수급 동향 및 전망, △양파 재배면적 및 경작신고 요령, △양파 정식 및 해동기 이후 관리 요령, △유통환경변화와 산지조직의 대응, △자조금제도의 이해 등 순으로 진행 됐다.

행정·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 참석자들은 양파 적정재배 활성화 방안 및 양파 재배 농업인 안정적 소득 보장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은 주산지 시·군과 농협, 생산자단체, 농촌경제연구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북 양파수급관리협의회를 9월 20일에 출범했으며, 사전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양파 적정재배면적과 기관별 관측, 수급정보 등을 공유·분석해 수급조절에 관한 의사결정 역할을 한다.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은"사전 수급조절 홍보, 교육 및 워크숍, 수급 관련 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주산지별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정확한 생산 정보에 의한 선제적 수급대책을 마련해 양파 가격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2024 과일산업대전 '예담채' 홍보관 운영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양재aT센터에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2024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참가해 전북자치도 대표 우수과일 '예담채'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전북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 '예담채'로 출하하는 사과, 배, 샤인머스켓,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전북 지역의 우수 과일을 전시·홍보한다.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북 대표 브랜드인 예담채(원예농산물), 십리향(쌀), 참예우(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참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담채는 올해 조선미디어웍스 주관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 8년 연속 수상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 FTA기금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만호 기자

전은지역사랑봉사단, 가로수 그래피티 니팅 봉사활동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지난 22일 전북은행 본점 앞 가로수 길에서 금암노인복지관(관장 최재훈)과 함께 가로수 '그래피티 니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래피티 니팅'이란 가로수에 섬유로 된 옷을 입히는 활동으로,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통적 손뜨개 기술을 현대예술과 결합한 전통문화 의 재해석, 도시 경관을 위한 공공미술의 접목 등을 위해 금암노인복지관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실타래 버스킹(실버킹)'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금암노인복지관 어르신자원봉사단 30명은 12회에 걸친 모임을 통해 가로수에 입힐 '그래피티 니팅' 작품 55개를 완성했으며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과 함께 올해 전북은행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가로수 55그루에 작품을 전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암노인복지관 최재훈 관장과 어르신자원봉사단,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회색빛 도시 환경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것뿐만 아니라, 뜨개질을 통해 사회활동, 스트레스 해소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점이 이번 사업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